

영광 어민들 '꽃게주식회사' 만든다

전남도, 주주 17명 참여 오늘 창립총회

영광지역 꽃게잡이 어민들이 참여하는 영광어업인꽃게주식회사가 설립된다.

전남도는 27일 "영광수협 회의실에서 영광 꽃게잡이 어업인 17명(자본금 1억원)이 주주로 참여한 영광어업인꽃게주식회사 창립총회가 28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영광 꽃게잡이 어업 허가는 423건

이며 지난해 영광 칠산 앞바다에서 65t을 잡아 49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전남 어획량 2544t의 25%에 달하는 영광지역 대표 업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꽃게잡이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업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주식회사 설립을 강조해왔다.

영광어업인꽃게(주)는 첫 사업으

로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영광 법성포 인근에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1660㎡ 규모의 꽃게 저온·저장 보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주식회사를 창립하면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중간상인의 횡포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꽃게 원물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가

공식품을 개발해 꽃게산업 발전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영광어업인꽃게(주)가 영광지역 수산기업화의 시범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김, 미역, 톳 등 전남도 10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규모화, 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토지분할 등 알아서 처리

'이심전심 지적민원' 호응

해남군

해남군이 군민들의 민원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이심전심 지적민원' 호응을 얻고 있다.

'이심전심 지적민원'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을 시 이를 원스톱으로 공적장부를 정리해주는 민원 편의의 행정이다. 연간 토지이동민원이 1만 건에 달하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필지를 실제로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지적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공부가 전으로 변경됐다. 이후 밭 직불금과는 직불금 등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 원부상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읍면 사무소를 다시 찾아야 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신안 섬지역 오가는 '다기능 행정선' 첫 취항

신안군이 5년간에 걸쳐 야심 차게 추진한 다기능 행정선이 27일 첫 취항에 나섰다. <사진> 54t 규모의 이 다기능 행정선은

신안군 관내 72개 유인도와 1만 2000km의 신안군 해역을 오가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자원 보전 등의 행정 수행에 활용될 예

정이다.

이날 첫 취항하는 다기능 행정선 선상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단체장 모임인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 먹는 물 '양호'

10곳 수질검사

신안군에 공급되고 있는 식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이 27일 "지난달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1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 의뢰한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원수 수질검사결과와 일차면 부동상수도 외 9개소 모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부동산·차량 4만5천건 압류...6억대 은닉 세원 발굴도

목포시가 고질적 세금 체납 해소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한 결과, 은닉 세원을 찾아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7일 "지난 5월말 현재 고액 체납은 5637건에 40억7000만원으로,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16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고액체납자 중 재산조치를 마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악성체납자의 경우 봉급·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체납 법인에 대해서도 관허사업 제한·보조금·대가지급 제한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했다.

이에 부동산 5039건에 16억7900만원, 차량 4만1939건에 47억4700만원, 채권 1만5268건에 55억 원에 달하는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다. 단순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이 중 13건(7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단행해 7건은 완료됐고 6건은 공매가 진행 중이다.

특히 시는 고질적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을 온라인으로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올 초부터 도입해, 빠르고 효과적인 체납 징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예금압류 후 신속한 추심이 가능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징수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992건에 6억8400만원에 달하는 은닉 세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용호 세정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이 매년 증가 추세"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등을 통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고질 세금체납자 끈질긴 추적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진도항 배후지 개발 국책사업 확정

진도군



대명리조트 1500억 투자

신성장 동력 미흡 여전

이동진 진도군수(사진)는 27일 "민선 5기 들어 진도군은 미래 진도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확정·추진하고 있으며, 1500억원이 투자되는 대명리조트 진도와 중국 장자도 어업그룹 해상 종묘 배양장 가공공장 등을 유치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소득증대,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진도음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22개 사업 685억원의 공모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태풍 등의 영향으로 2년 동안 비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대과, 복숭, 월동배추 등의 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마케팅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전복과 슈퍼김, 꽃게 등 고소득 수산물로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복합한 6차 산업화 추진과 농수특산물 직거래를 더욱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충하고 농산물 규

을 확대했으며, 차별화된 체험·체험형 인프라를 다양하게 확충했다.

특히 진도군의 중심인 읍권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50억원을 투입, 1.6km 시가지 내 60여개의 전신주, 통신선을 지중화하고 25억원을 들여 간판 206개소 정비 등 녹색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또 민속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 민속문화예술특구 지정 및 국립 한국민속예술대학 건립을 정부에 건 의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도 산재해 있다. 우선 중국 장자도 어업그룹과의 투자협약과 관련 전남도와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군수는 "지난 3년 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이 보배섬 미래 진도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미래성장 동력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이를 대규모 투자유치로 실현시켜 진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확 달라진 진도읍 시가지

전신주 없애고 가로등·간판 일제정비

210억 들여 연말까지 상·하수관 매설

새롭게 바뀐 진도읍 시가지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진도군은 27일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도읍내에서 아스콘 재포장 및 보도블럭 교체, 쌈지공원, LED 가로등 교체, 가로형 간판정비 등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읍내에서는 하수관로와 상수도관 매설 공사를 시작으로 진도읍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및 아리랑거리 조성, 전선 지중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관거 정비, 경관 디자인 거리

(간판정비 206개)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50억원을 투입, 진도읍 동외삼거리~조금사거리(18km) 구간의 전신주 60개를 없애고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물론 점포들의 간판 정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진일장~진도읍 성당(204m), 진도읍~동외리 회관(425m), 서외리 주차장~진도항고(330m), 향교~북상리 외곽도로(190m) 등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들 도로가 개설되면 주차가 금지되고 상가 이용을 위한 정차는 20분으로 한정되며, 전구간에 걸쳐 고정식(CCTV) 및 차량탐지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게 된다.

진도읍 하수관거 사업은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 82.3km의 하수관거가 설치되며, 30.2km 교동지구는 올해 말, 52.1km의 동외지구는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알짜배기 영어회화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법과 활용단어로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 교육부 지정 필수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말짜배기 고사성어백과 각 8,500원

문의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